

공군 예비역 협력단체 간담회 참가

본회 이계훈회장과 임원진은 9월 26일 아시아나 CC에서 진행된 학사장교회 주최 공군 예비역 협력단체 간담회에 참가하였다. 이날 모임은 지난 6월 18일, 본회 주최로 공사 총동창회와 학사장교회를 초청하여 실시한 협력단체 간담회의 후속 형태로 최병채 학사장교회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본회와 공사 총동창회 임원 등이 참가하여 운동 및 식사를 같이 하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예비역단체로서 공군 발전



및 활동 지원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11~12월 중 3개 단체 회장단이 계룡대를 방문하여 공군 지휘부와 소통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군 학사장교 70기 임관 50주년 및 정기총회 참석

본회 이계훈 회장은 9월 30일, 공군회관에서 열린 공군 학사장교 70기 정기총회 및 임관 5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참가자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병채 학사장교회장, 윤은기 공군정책자문위원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여 임관 50주년을 맞이한 주인공들을 축하하고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회장은 축사에서 “가장 소중했던 청춘의 시기에 공군에서 복무하면서 공군의 간성으로 조국 영공수호에 헌신하시고 국가 핵심산업으로 발돋움한 항공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신 만큼 당당한 자부심을 가



지시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주시길 바라며, 오랜만에 만나신 전우분들과도 기억보다 강력한 추억을 마음껏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공군 소식

제41·42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



손석락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9월 3일 오후 계룡대 대연장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41·42대 공군참모총장이·취임식에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강력한 공군력으로 뒷받침하는 가운데,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정예 공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손 총장은 이를 위해 공군 전 장병들에게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변화를 주도하는 첨단 우주 공군 건설 △군사

전문성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공군인 양성 △상호존중과 소통의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임하는 이영수 전임 총장은 39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이날 명예롭게 전역했다. 이 전 총장은 활발한 군사외교활동으로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한·미·일 공중훈련과 공군참모총장급 화상회의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3국 간 군사협력을 통해 공군의 작전수행능력을 다변화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42대)



손 총장은 17전투비행단장(17전비), 방공관제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부 정보참모부장, 참모차장, 교육사령관 등 정보작전과 교육·훈련 분야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풍부한 연합 항공우주작전 능력과 정책 기획 능력을 바탕으로 한미 공군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국방개혁을 통해 공군의 첨단화 및 정예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이다.

손 총장은 대위 시절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조종사로 활약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령 진급 후에도 블랙이글스 지휘관인 53특수비행전대장직을 수행하며 K방산 홍보에 앞장서기도 했다.

또한 F-15K 전투기 초기 도입과 전력화 요원으로서 11전투비행단 122비행대대장직을 맡아 조종사 양성과 전술교리 및 훈련 체계를 발전시켰다.

17전비단장 재임 때는 F-15K 전력화 경

험을 바탕으로 4세대·5세대 전투기 통합 운영 개념을 정립하고, F-35A 조종사들의 인력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교육사령관 재직 시에는 교육혁신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미래 공군교육훈련 발전방향 비전을 구상했다.

항공우주 무기체계 기술발전 콘퍼런스 개최



공군은 7월 28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미래 항공우주 기술과 무기체계의 혁신·민·관·군 협력의 시너지’를 주제로 ‘항공우주 무기체계 기술발전 콘퍼런스 2025’를 개최했다.

공군이 주관하고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KAIA),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군 내외 주요 인사를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

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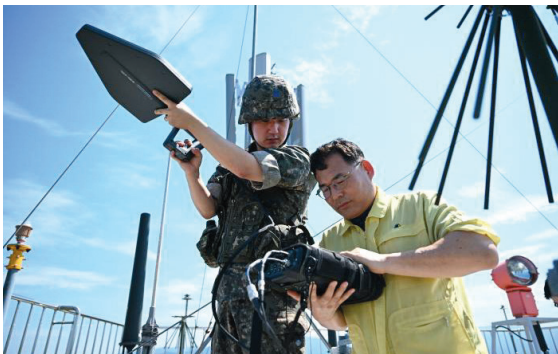
콘퍼런스는 공승배(소장) 군수사령관의 환영사로 시작해 정일영·박선원 국회의원 축사, 조진수 한양대 명예교수 기조연설, 세션별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세션별 발표에서는 △미래 전장 주도를 위한 첨단 항공우주력 구축 방향 △미래 전장 환경 변화와 항공무기체계 기술 발전 △항공우주력 발전과 신기술·무기체계 정보 교류를 위한 업체별 신기술 등이 소개됐다.

공중전투사, 전파교란 대비 관군 합동훈련

공군18전투비행단은 7월 24일 오후 강릉기지에서 공중전투사 주관으로 ‘GPS 전파교란 대응 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최근 심화하는 GPS 전파교란 위협은 군사력 운용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 특히 공군의 경우 다수 무기체계가 통신, GPS, 레이더로 구성돼 있어 안정적인 전파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공중전투사는 예하부대를 대상으로 매년 4회 GPS 전파교란 대응훈련을 시



행해 오고 있다. 훈련에는 육군은 물론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소속 중앙·강릉 전파관리소도 함께해 실전성을 더했다.

공작사, 소형무인기 위협대응연습



공군작전사령부가 예하 기능사령부를 대상으로 실제 사례를 반영한 소형무인기 위협 대응 연습을 펼치고 있다.

공작사는 7월 29일 공중전투사령부, 기동정찰사령부, 미사일방어사령부, 방공관제사령부를 대상으로 '모의 연계 하 소형무인기 위협 대응 연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습은 무인기 위협의 실전적 대응 절차

발전방안 토의와 전시 국면별 소형무인기 및 탄도·순항미사일 복합 위협 상황 조성을 통한 위기관리·대응 연습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거미줄 작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섞어 쪄기' 등 최신 전훈을 반영한 동시다발적 복합공격 상황을 통해 우리 공군의 소형무인기 위협 대응 능력의 현 주소와 도전 요소를 식별하고 있다.

F-15K 주기검사 500대 출고 기록 달성



공군11전투비행단(11전비) 부품정비대대가 8월 11일 F-15K 전투기 주기검사 500대 출고 기록을 달성했다.

11전비가 운용하는 F-15K는 전전후 공대공·공대지 임무를 수행하며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한 공군의 주요 전력으로, 이를 정밀하게 관리하고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주기검사는 공군의 작전 지속성과

전투준비태세 유지의 핵심 기반이다.

이번 주기검사 500대 출고 기록은 2007년 5월 F-15K 첫 주기검사를 시작한 이후 18년에 걸쳐 이뤄낸 성과이자 정비사들의 헌신과 전문성이 담긴 결과다. 2021년 7월 400대를 출고한 지 약 4년 만의 기록이기도 하다.

UAE 국방차관 KF-21 우정비행



이영수 공군참모총장과 이브라힘 나세르 무함마드 알 알라위 아랍에미리트(UAE) 국방차관이 8월 7일 공군 사천기지를 찾아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우정비행을 했다.

이날 우정비행에서는 이 총장이 FA-50, 알 알라위 UAE 국방차관이 KF-21전투기에 탑승했다.

앞서 알 알라위 UAE 국방차관은 전날 이

두희 국방부 차관과 만나 양국 안보정세를 포함한 주요 관심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두 차관은 한·UAE 간 국방교류협력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발맞춰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11월 UAE에서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말레이시아, 첫 공군 대 공군회의

우리 공군과 말레이시아 공군이 2023년 체결한 '공군 대 공군회의 개설에 관한 협약'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다.

공군은 8월 5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다또 하지 사하루딘 빈 만소르(소장) 공군작전 전략참모부장을 대표로 한 말레이시아 공군대표단과 제1차 공군 대 공군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국방·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2023년 한국항공우주



산업(KAI)과 국산항공기 FA-50M 18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전투기들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한국·영국 공군, 연합훈련 전개

한국과 영국 공군이 동해상에서 적 지대 공·순항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훈련을 실전적으로 펼쳤다. 이를 계기로 만난 양국 공군작전 지휘 사령탑은 굳건한 군사협력을 다짐하며 글로벌 안보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군은 8월 5일 영국 공군과 4·5세대 통합운용 전술을 적용한 연합훈련을 전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훈련에는 우리 측 F-35A, F-15K, KF-16, FA-50 전투기와 영국 공군의 F-35B 전투기가 참가했다.

이번 훈련을 위해 영국 공군은 F-35B 전



투기 2대와 A-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1대를 지난 8월 3일 공군 청주기지에 전개했다. 이어 4일 오후에는 동해상에서 우리 공군과 공중급유 훈련을 실시했다.

임시정부 비행학교 후손들, 공군 위용 확인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임시정부 비행학교(월로우스 비행학교)' 주역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를 수호하는 공군의 위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8월 13일 공군 고등비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1전투비행단(1전비)을 방문해 부대 현황을 소개받고 학생조종사들과 간

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공군과 국가보훈부의 공식 초청으로, 비행학교 설립을 주도했던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 비행학교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김종립 지사 등 9인의 항공 독립운동가 후손과 가족 20여 명이 초청됐다.

16전비 T/FA-50 주기검사 500대 달성 기록

공군16전투비행단(16전비)이 항공기 주기검사 500대 출고 기록을 수립했다.

16전비는 8월 20일 "국산 전술입문기 TA-50과 다목적 전투기 FA-50의 주기검사 500대 출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전날 부대 내 정비격납고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은 지난 2011년 10월 TA-50의 첫 주기검사 이후 14년 만에 달성됐다. 16전비가 수립한 이번 기록은 수백 번의 항공기를 검사



하며 쌓은 경험과 고도의 정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궈낸 값진 결과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전투부대 현장 점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어떤 도발에도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8월 21일 군산기지, 25일에는 청주기지를 찾아 지휘비행하며 대비태세 현장을 점검했다.

군산기지는 38전투비행전대(38전대)와 미8전투비행단이 함께 주둔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상징적 기지이며, 청주기지는 17전투비행단(17전비), 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29전대), 6탐색구조비행전대(6전대)가 자리한 공군의 핵심부대이다.



이 총장은 KF-16 및 F-5 전투기에 탑승하여 편대를 지휘하며 주요 작전절차와 조종사들의 임무기량 등 임무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전 장병과 군무원을 격려했다.

공군교육사, 252기 부사관 후보생 임관



공군교육사령부(교육사)는 8월 28일 교육사 최용덕관에서 손석락(중장) 사령관 주관으로 제252기 부사관 후보생 임관식을 거

행했다. 이날 임관한 신입 부사관 207명은 지난 6월 2일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해 군인화·간부화 단계로 이뤄진 3개월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거쳐 공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예 부사관으로 거듭났다.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부사관에게 수여되는 국방부장관상은 최현일 중사에게 돌아갔다. 손 사령관은 훈시를 통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사 전문지식과 임무수행능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군, 2025 방공·미사일방어 포럼 개최

공군은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한국방위산업학회와 공동으로 ‘2025 방공·미사일방어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 비대칭 무기 위협에 대비해 미래 방공·미사일방어체계 발전 과제 도출을 중점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순항미사일과 소형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저비용 고효율’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방공 무기체계의 운용 개념을 바꾸고, 첨단기술을 접목해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사는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장 개회사,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환영사, 성일종 국회국방위원장과 부승찬·유용원 국방위원 축사, 윤용현 국민대 교수 기조강연, 세션1·2 순으로 진행됐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취임 첫 현장점검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9월 14일 김해기지를 찾아 취임 후 첫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손 총장은 공군기동정찰사령부, 5공중기동비행단, 51항공통제비행전대 등이 있는 김해기지를 찾아 대비태세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먼저 한반도 영공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E-737 피스아이 항공통제기 임무 현장을 찾아 작전 요원들을 격려했다.

손 총장은 “주말 등 가릴 것 없이 365일 매일 긴 시간을 비행하며 감시정찰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기에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이 지켜질 수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손 총장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요원들을 격려했다.

신예 전투조종사 42명 탄생

조국 영공수호의 임무를 수행할 정예 전투조종사 42명이 탄생했다. 공군1전투비행단(1전비)은 8월 27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4-3차 고등비행 교육 과정 수료식’을 거행했다.

고등비행 교육 과정은 공군 조종사 양성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학생조종사들은 이 과정 동안 국산 기술로 개발한 T-50, KT-1 훈련기를 활용해 교육받는다. 이날 42명의 신임 조종사는 1년 10개월간 강도 높은 3단계(입문-기본-고등) 비행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목에 걸었다. 이들은 향후 전투기입문과정(LIFT), 전환 및 작전가능 훈련(CRT) 등 부여받은 기종에 따른 교육을 거쳐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최일선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공군 시험비행 조종사, 튀르키예와 교류행사

우리 공군 시험비행 조종사들과 튀르키예 공군 조종사들이 상호 간의 최신 시험비행 기법을 공유했다. 공군시험평가단은 8월 29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첫 시제기의 조종간을 잡았던 안준현 중령을 팀장으로 구성된 4명의 공군 시험평가단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열흘간, 튀르키예 에스키셰히르주의 공군401시험비행대대를 찾아 상호교류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시험비행 요원들은 튀르키예 공군 시험비행 요원들과 함께 튀르키예 공군 전투기에 탑승해 가상 무장투하 및 조종 안정성 시험비행 기법 등을 수행했다. 특히, 우



리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튀르키예 공군의 F-16 전투기에 탑승해 튀르키예가 자체 개발한 표적식별 장비인 ‘ASEL POD’의 성능을 직접 체험하면서 시험비행 기량 향상을 도모하였다.

공군, 민·관·군 항공우주안전심포지엄 개최



공군이 미래 항공우주 안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의 장을 열었다. 공군은 9월 18일 공군호텔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25 민·관·군 항공우주안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항공우주력 발전과 연계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주제로 개최됐다. 심포지엄에는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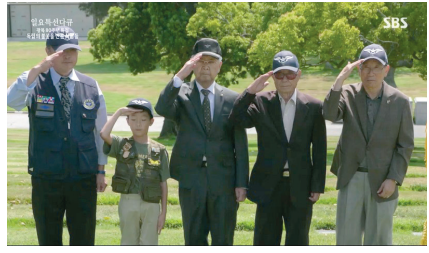
공우주산업(KAI), 미 공군 등 항공우주 안전 분야 민·관·군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손 총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심포지엄이 미래 항공우주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선진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A지회

LA지회(지회장 심인태)는 8월 31일 SBS에서 방영된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광복 80주년 특집 - 독립의 불꽃을 만든 사람들”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에는 미주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활약과 뒷이야기 등이 잘 나와 있으며, 특히 한국 공군의 태동에 영향을 미친 월로우스 비행학교와 이를 지원한 김종립 애국지사 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소개되었는데, LA지회에서는 김종립 애국지사 추모



및 고국 봉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주지부



제주지부(지부장 강형근)는 9월 30일 도내 식당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회원소개 및 신입회원 인사, 지부 안보단체 활동보고와 기타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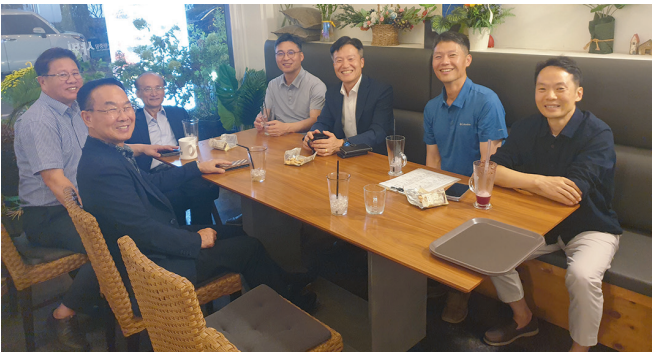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17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부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토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광주지부

광주지부(지부장 손정문)는 9월 19일 제1전투비행단 인근 식당에서 김종수 단장과 지휘관 참모, 광주지부 지부장 및 이사장, 사무국장 등 임원들이 참석하여 유대강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종수 단장은 비행단 전투요원 체력단련대회에 광주지부 임원을 초대하였고, 손정문 지부장은 11월에 광주기



지에서 계획된 달빛 교류행사(광주지부와 대구지부 상호 교류행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대구지부



대구지부(지부장 남상석) 장학재단은 9월 29일 재단이사회를 개최하여 고황일우 고문 추모제와 장학재단 발전기금 고액 기부자에 대한 기탁증서 수여식을 거행했다.

고황일우 고문은 경북대학교 병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의료계의 대부로 추앙 받은 원로로 6.25전쟁 당시 공군 의무병으로 참전한 6.25참전유공자 이시면서, 전우회와 장학재단에 큰 기여를 하시다가 지난 8

월에 노환으로 작고하셨다.

권태정 장학재단이사장은 추모사를 통해 고인의 위훈과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어서 장학재단 발전기금 1천만원씩 기부한 김정수 전)이사장과 신문식 고문(전, 6.25참전회장)에게 장학기금기탁증서 수여식과 함께 결코 쉽지 않은 결단으로 거액을 쾌척하신 두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원주지회

원주지회(지회장 신종균)는 8월 23일 약 5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2025년 야유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1,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번 야유회에서는 1부 스크린골프와 당구대회를 통해 회원들의 숨겨왔던 끼와 기량을 선보였으며, 2부 만찬과 시상식을 통해 서로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지회 임원들과 참가 회원들은 향후 다양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화천지회



화천지회(지회장 김철준)에서는 9월 27일, 연례행사로 진행되는 삼군(공군, 해군, 해병대) 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올해는 해병대 주관으로 관내 봉어섬에서 진행되었으며, 족구를 비롯하여 파크골

프와 다양한 이벤트 등을 실시하였다.

공군전우회 화천지회는 작년에 이어 2027년에 삼군 체육대회 행사를 주관할 예정이다.

강릉지회

강릉지회(지회장 최원규)는 9월 18일 강릉시 식당에서 9월 정기모임을 개최하였다.

올해 여름들어 강릉지역을 강타한 폭염과 가뭄 속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모여 전우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회원들의 염원 속에 강릉지역에 발



효된 가뭄 특별대책은 10월들어 강수 및 여러 조치로 해제되어 정상 상황으로 복귀되었다.